



새로운 시선

박광훈 신부

(대구대학교구*/제85차 워크숍 수료)

지난 여름, 4년간의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교 양성자 신부로 소임을 받았습니다. 학교 사정상 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을 위한 강의(잠 삶의 길 - 그리스도교 윤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낙태'에 대한 강의 중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저를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59명의 학생들 중 47명이 낙태를 찬성했습니다. 수업 중에 많은 토론과 이야기를 했지만, 총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성문제를 접하면서 “하지 마라”, “이것을 하면 죄다”라고 말하며 죄의식과 두려움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한 기존 성교육에서, 긍정적이며 아름다운 성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틴스타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즉 새로운 시선으로 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틴스타 지도자 교육을 받은 뒤에 가지게 된 새로운 시선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인간의 몸은 혼인적이라는 것인

니다. 즉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식기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인간의 성은 관계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즉 인간의 성은 사랑에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 속에서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인 몸을 지닌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서 처음 이루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욕망이나 쾌락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장 인간다운 것을 찾아야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외 틴스타 교육을 통해 제가 얻게 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틴스타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틴스타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한티영성관

마리아의 이야기

고정민

(틴스타 교사/제78차 워크숍 수료)

오랜 시간이 지났다. 보지도 못하고 인식 하지도 못한 여동생. 살아 있다면, 지금 스무 일곱 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내게 둘째 동생의 존재는 전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해 준다. 동생이 있다면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아리따운, 아님 씩씩한 아가 씨일까?

오렌지와 흰색 물방울무늬가 있는 긴 원피스를 입고 남산만한 배로 천천히 학교 계단 위로 날 데려다 주신 임신한 엄마의 평온한 모습, 매우 속상해 하시며 아빠한테 어디 가서 사내아이 하나 낳아 오라고 말씀하시는 외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멋진 여장관이 될지 누가 아느냐며 아가 낳아야 한다고 아빠에게 말하는 어릴 적 나와 여동생의 모습 등이 조각조각 어슴푸레 생각난다. 그 뒤, 신림동 양지병원 온돌방에 누워 있는 우리 엄마... 그때가 6개월 된 둘째 여동생이 세상의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라진 때다.

내게 가장 행복했던 때를 손꼽으라면 임신과 낳은 외국 여행기간이다. 자연스럽게 불어 나는 배와 스스로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생명! 직접 나의 몸이 생명을 위하여 변하고 창조주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무거운 몸도 기뻛고 안에서 살짝 또는 힘차게 튀어 나올 것 같은 발차기도 사랑스러웠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자와 나의 생산적인 합작품.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은 작은 몸... 그 전 어느 작업 활동보다 날 충만하게 만드는 한 생명! 지금도 작은 어린 선물의 손, 발, 어깨, 등, 엉덩이를 보며 멋진 성인으로 잘 자라기를 조용히 눈으로 속삭이곤 하는데...

사랑 많은 우리 엄마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까. 죄 없이 순수한, 형상을 온전히 갖추지도 못하고 먼 곳으로 떠나간 한 생명! 엄마, 아빠에게서 나왔지만 두 분의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뜯겨져 하느님한테로 간 나와 닮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생! 엄마는 내가 출산할 때도 아이 낳는 것 보기 힘들다면서 병원에 오지 않으셨다.

늦깎이 그리스도 신앙생활에 아이를 잘 키우자며 틴스타에 관심을 갖고 좌충우돌하는 내게 착한 목자 수녀회의 '화해 피정' 소식이 들려왔다. '한 생명은 온 세상보다 중요하다.' 라는 글귀를 보자 펄쩍 엄마가 떠올랐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홀로 여행한 번 간 적 없는 엄마에게 2박 3일의 피정은

면일이었다. 미리 아빠에게 엄마 휴가를 부탁드렸고,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기도도 못한다며 근심과 걱정하는 몸 성치 않은 엄마를 설득하기에 며칠이 걸렸다.

화해 피정 첫 날, 아침 일찍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미사보와 다홍색 목주 팔찌를 엄마에게 드렸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받으셨다. 사순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총을 많이 받는다는데 제발 마음 편히 우리 엄마 홀로 내면의 휴식을 달라고 계속 기도드렸다.

이는 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의 시기였다. 아빠는 처음으로 혼자 식사를 해결하셨다(설마 엄마가 가실 줄은 모르셨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는 전화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수녀님은 어찌 천상에서 온 분처럼 우리를 따스하게 대하시나? 동생은 죄 없으니 하늘나라로 곧바로 갔다,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서 지냈다..."

프로그램 안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사진 찍는 시간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일흔이 다가오는 건망증 엄마의 짝은 푹푹하고 신앙심 깊은 젊은 아주머니다. 참가자 가운데 유일하게 신자가 아닌 엄마를 눈 감으시라 하며 손을 잡고 세 곳으로 이끌며 찍었다고 한다. 어둠속에 이끄는 손이 처음 당도한 곳은 예수님 상! 눈을 떴을 때 아름답고 눈부신 햇살이 예수님 머리 뒤에 후광처럼 비추었다. 두 번째 당도한 곳은 빈센트 환경 마을의 지적장애

형제님들! 엄마를 향해 예쁘다며, 엄지손가락을 쳐들며 밝고 크게 웃었다고 한다. 엄마는 울고, 짝은 힘든 상황에도 다들 열심히 산다며 위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끄신 곳은 성령으로 아가 예수를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님 동상 앞! 한 사람의 삶을 견뎌 내야 했던 여자, 우리들의 엄마 마리아.

따뜻한 곳, 따뜻한 마음을 지닌 상처 입은 사람들과 2박 3일간 보내고 오신 엄마는 가톨릭에 대해서도, 나의 성당 활동도 너그럽게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

화해 피정 이후 파스카 3일이 시작되었다. 부활절 노란 초를 들고 하느님께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행복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스스로 멋진 분이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틴스타의 가르침대로 '생명과 사랑'을 되새기며 한 생명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리아가 되게해주세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생리주기학습표를 날마다 표시하면서 투기가 항상 일정한 것을 보고 신기했고 내 몸 안에서 항상 생명이 살아 있는 느낌을 받았다. 특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 더욱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러나 틴스타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여성 또한 저와 같이 생각하고, 통통해야 한다고 느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이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사랑한 여자를 위해 결혼 때까지 어떤 상관관계도 요구하지 않자, 데이트를 하는 동안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은 여자 친구가 의아해했다는 이야기다.

나도 처음에 성에 대해 잘 모르고 인공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위의 남자와 같은 생각이었다. '과연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느낀립을 하고 성행위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였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다 점차 사랑과 생명을 위한 성행위가 아닌 쾌락 위주의 성행위가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는 아마도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후 틴스타를 통해 성에 대해 알아가고 인공피임에 대해 알아가면서 위의 남자의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다. 특 '사랑하면 당연히 성행위를 해야 한다' 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던 내가 '상대를 많이 사랑하고 노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려 줘야 한다' 는 남자의 생각이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성행위는 SEX의 본질적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나는 이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나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다.

☆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함께하는 화해 피정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착한목자수녀회
- 대상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선착순 8명, 당일 접수 안 됨)
- 일정 : 월 1회 개최 (2박 3일) 첫째 날 오후 3시~마지막 날 오후 1시 30분
- 날짜 : 3월27일(화)~29일(목), 4월25일(수)~27일(금), 5월23일(수)~25일(금)
- 장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참가비 : 한국틴스타에서 전액 후원

☆ 한국틴스타 프로그램 교안 나눔반 모집 안내

한국틴스타는 전문적인 틴스타 교사들을 양성하여 현장과정을 돕는 목적으로 프로그램별 교안 나눔반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한국틴스타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한국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 수료자
- 운영반 :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교안 나눔반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교안 나눔반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교안 나눔반

※ 반 별 모임 시간과 장소는 신청자 분들에게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심화과정 진행

- 86차 서울 워크숍 이후 명동, 종로
- 88차 의정부 워크숍 이후 금곡, 춘천, 창현, 용현동
- 89차 광주 워크숍 이후 광주, 순천

☆ 중학교 프로그램 교안 나눔 진행

- 광주, 수원



☆ 2012년 틴스타 국제회의 안내

'2012년 틴스타 국제회의'가 2012년 8월11일(토)부터 16일(목)까지 의정부 한마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영어, 불어, 스페인어 통역 봉사할 해 주실 틴스타 교사는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현장

(2012년 3월 현재)

분류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시작일	종료일
성당	대구	신안성당(중)	백민주, 김치훈 선생	2011.10.10	2011.12.18
	경기	의정부교구 백석동 성당(총)B	이정현 선생	2011.11.24	2012. 2.16
	서울	자양동 성당(총)	김태선 수녀 주설령 선생	2011. 9. 3 2011. 9. 8	2011.12. 3 2011.12.15
학교	광주	목포가톨릭대학교(총)	장남희 선생	2011.10. 7	2011.12. 9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총)A	백민주 선생, 김덕수(남성 분반)신부	2011. 8.30	2011.12.13
		대구가톨릭대학교(총)B	백민주 선생, 김덕수(남성 분반)신부	2011. 8.30	2011.12.13
		대구가톨릭대학교(총)	이승현 선생, 김덕수(남성 분반)신부	2011. 8.31	2011.12.14
	서울	금호여자중학교(중)	고경미 선생	2011. 8.31	2011.11.16
			김옥남 선생	2011. 8.29	2011.11.14
			박경숙 선생	2011. 8.29	2011.11.14
			박성은 선생	2011. 8.30	2011.11. 8
		이선자 선생	2011. 8.31	2011.11.16	
		금호여자중학교(중)A	허복례 선생	2011. 8.29	2011.11.14
	금호여자중학교(중)B	허복례 선생	2011. 8.29	2011.11.14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고)	정혜경 선생	2011. 3.19	2011.10.15	
	수원	효명고등학교(고)	김명숙 선생	2011. 9. 5	2011.12.19
			박소윤 선생	2011. 9. 6	2011.12.27
		강명선 선생	2011. 9. 6	2011.12.27	
		효명고등학교(고)A	김기환 선생	2011. 8.30	2011.12.27
		효명고등학교(고)B	김기환 선생	2011. 8.30	2011.12.27
		효명고등학교(고)A	노성호 신부	2011. 8.29	2011.12.19
		효명고등학교(고)B	노성호 신부	2011. 8.29	2011.12.19
		효명고등학교(고)C	노성호 신부	2011. 8.29	2011.12.19
		효명고등학교(고)A	이회정 선생	2011. 9. 5	2011.12.19
		효명고등학교(고)B	이회정 선생	2011. 9. 5	2011.12.19
	인천	고잔중학교(중)A	김경숙 선생	2011. 9. 7	2011.11.30
			김경숙 선생	2011. 9. 7	2011.11.30
			김정성 선생	2011. 9. 7	2011.11.30
		고잔중학교(중)B	김정성 선생	2011. 9. 7	2011.11.30
			김정성 선생	2011. 9. 7	2011.11.30
김정성 선생			2011. 9. 7	2011.11.30	
고잔중학교(중)C		김희영, 김기환 선생	2011. 9. 8	2011.12. 1	
		김희영, 김기환 선생	2011. 9. 8	2011.12. 1	
		김희영, 김기환 선생	2011. 9. 8	2011.12. 1	
고잔중학교(중)A		오미선 선생	2011. 9. 8	2011.12. 1	
		오미선 선생	2011. 9. 8	2011.12. 1	
		오미선 선생	2011. 9. 8	2011.12. 1	
고잔중학교(중)B		이정림, 민형식(남학생 분반), 김정성(남학생 분반) 선생	2011. 9. 9	2011.12. 2	
		이정림, 민형식(남학생 분반), 김정성(남학생 분반) 선생	2011. 9. 9	2011.12. 2	
		이정림, 민형식(남학생 분반), 김정성(남학생 분반) 선생	2011. 9. 9	2011.12. 2	
고잔중학교(중)A		황윤정 선생	2011. 9. 9	2011.12. 2	
		황윤정 선생	2011. 9. 9	2011.12. 2	
		황윤정 선생	2011. 9. 9	2011.12. 2	
고잔중학교(중)B		김인순 선생	2011. 9. 5	2012. 2.10	

분류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시작일	종료일
시설	서울	마자렐 로센터(중)	백민경 선생	2011. 9.28	2011.11.30
			허복례 선생	2011. 9.28	2011.11.30
		김태선 수녀	2011.10. 5	2011.12.23	
	마자렐 로센터(고)	임복규 선생	2011.10. 5	2011.12.23	
기타	대구	SOS 어린이 마을(중)	김희열 선생	2011. 7.30	2011.10.23
			김희열 선생	2011. 8.13	2011.10.23
기타	서울	국가대표동호회(총)	김성희 선생	2011.10.11	2012. 2. 4

진행 현장

(2012년 3월 현재)

분류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시작일
성당	경기	의정부교구 백석동 성당(총) A	이정현 선생	2011.11.22
	대구	신안성당(중)	이인경 선생	2011.10.10
			김상일 선생	2011.10. 8
		경산 사동 성당(중)	김지훈 선생	2011.10. 8
		경산 사동 성당(총)	김정숙 선생	2011. 8.27
	서울	매천성당(총)	김형희 선생	2011. 9.17
			유지원 선생	2011. 9.18
		자양동 성당(고)	이상학 선생	2011. 9.18
			김혜경 선생	2011. 9.18
			안 은 선생	2011. 9.18
정지영 선생			2011. 9.18	
수원	자양동 성당(중)	주설령 선생	2012. 1.13	
		김명숙 선생	2012. 1.13	
	용호성당(총)	양은미 선생	2012. 1.13	
		김정숙 선생, 김덕수(남성 분반)신부	2011. 8.30	
학교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총)A	김정숙 선생, 김덕수(남성 분반)신부	2011. 8.30
		대구가톨릭대학교(총)B	김정숙 선생, 김덕수(남성 분반)신부	2011. 8.30
		무학중학교(중)	최지인 수녀, 공수득(남성 분반)선생	2011. 9.24
	서울	하비에르 국제학교(총)	김혜정 선생	2011.12. 1
		하비에르 국제학교(중)A	고정민 선생	2011.12.16
		하비에르 국제학교(중)B	정희강(남학생 분반)수사, 정선미 선생	2011.12.16
		하비에르 국제학교(고)A	박성은 선생	2012. 2. 3
		하비에르 국제학교(고)B	하정용 신부, 강정애 선생	2012. 2. 3
		학익고등학교(고)	조은주, 안병욱(남학생 분반) 선생	2011. 9.21
	충남	충남인터넷고등학교(고)	강정혜 선생	2011. 9. 7
시설	광주	목포성모의 집(총)	정금자 수녀	2011. 9.29
		꿈사리 공동체(고)	윤영희 선생	2011.11.30
		복자여명의 집(새터민)(고)	이필숙 선생	2011.12. 3
	서울	상계동 마음터 공부방(총)	김영숙 선생	2011.12. 8
		마리스타 지역아동센터(중)	김수경 선생	2011. 9. 7
		청소년 안젤라의 집(고)	전영근 선생	2011. 9. 7
기타	서울	청소년 안젤라의 집(고)	김영숙 선생	2012. 1. 3
		나자렛 집(중)	이정금 수녀	2012. 1. 9
	경기	가좌동 어머니 모임(총)	김수경 선생	2011.11.10
	대구	하남 자기주도 학습센터(총)	김태인 선생	2011.10.27
고산.노변.소산.시지(중)-홈스쿨링	서영애 선생	2011.12.30		

* 중 : 중학교 프로그램, 고 : 고등학교 프로그램, 총 :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산 : 산후 생식력 자각 프로그램



☆ 2011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종료 현황

제86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서울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간 : 2012년 1월 3일(화)~6일(금)
- 장소 : 노동사목회관(보문동)

제89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광주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광주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 기간 : 2012년 2월 4일(토)~5일(일), 11일(토)~12일(일)
-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제91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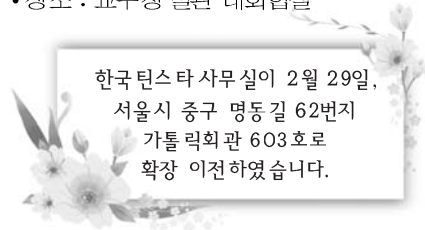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 기간 : 2012년 2월 7일(화)~10일(금)
- 장소 : 인천 가톨릭회관 312호

제88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의정부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의정부교구 천주교 금곡 성당
- 기간 : 2012년 1월 30일(월)~2월 2일(목)
- 장소 : 천주교 금곡 성당 대강의실

제90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대구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대구지부
- 기간 : 2012년 2월 21일(화)~24일(금)
- 장소 :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 한국틴스타 소식을 이메일로 받으세요! *^^*

신속한 입부처리와 우편물 발송 및 반송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신청받습니다.
kteenstar@hanmail.net / www.teenstar.or.kr 자유게시판

☆ 한국틴스타 소식지는 틴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과 느낌, 그 밖의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kteenstar@hanmail.net 입니다.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 신한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021-644868
- 외환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2년 3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길 62번지 가톨릭회관 603호

전 화 : 02)755-2629

발 행 인 : 김태선 데레사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anmail.net

팩 스 : 02)727-2243